

우수상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박지희 집사 은현교회

특별상

과거에도 지금도 내 곁에서

황금빛 학생 예프랑교회



일 년 12개월 중에서 6개월이 지났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이다. 나의 직장은 주 중에 하루는 쉴 수 있어서, 친정엄마가 병원 진료를 받으러 오는 5월 24일에 직장을 쉬기로 하였다. 엄마랑 언니와 함께 서울에서 테이트하기로 한 것이다. 나의 계획은 이러했다. “병원에서 만나 근처 율림픽공원에서 걷고, 공원 안에 자리한 ‘투썸’에서 커피 마시며 더위를 식하자. 그리고 근처 석촌호수를 조금 걷다 보면 남편이 오겠지?” 그런데 몸이 아픈 엄마는 급세 피로가 쌓였고, 많이 걸을 수 없는 더운 날씨였다. 배가 조금 고파서 ‘투썸’이 아닌 그 근처 ‘파리크라상’에 갔고, 남편은 선거 차량 때문에 차가 많이 막혀 도착 예상보다 1시간 정도 늦어졌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일정한 롯데타워에 가 기에는 너무 늦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롯데타워 티켓이 당일만 사용 가능하고 금액이 비쌌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계획과는 완전히 틀어진 일정에 소심한 나는 부척 속이 상했다. 옆에서 계속 괜찮다고 위로하는 남편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엄마는 그동안 폐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날짜를 잡고, 수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치원에서 검진하다가 갑상선에 이상이 보인다는걸 알게 되었다. 우리는 얼른 대학병원에 소견서를 들고 갔고, 급하게 다음날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다음날 또 조치원에서 올라오는 건 무리여서, 그날 우리 집에서 주무시게 되었다.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하기에 직장에 조금 늦는다는 허락을 받고 병원에 갔다. 그런데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CI 촬영과 초음파를 해야 하는데, 가능한 시간을 찾아보니, 이틀에 나눠 찍게 되었다.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다행스럽게도 목요일엔 남편이 시간을 내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갈 수 있었고, 금요일은 나의 직장에서 일을 빼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목요일에 출근을 하던 내 마음에 아주 열게 어떤 생각이 나를 스쳐갔다. ‘네 힘을 빼라!’ 그동안 나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나를 다그치는 편이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부모님의 구원문제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늘 편안함보다는 부담을 가지고 애를 썼었다. 그런데 이번에 알았다. 가족 구원을 이루려는 나의 주장, 내 힘이 너무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엄마는 결국 폐와 갑상선에 무언가 보여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입원 내내 보호자 1명만 가능해서 서울에 사는 내가 엄마 옆에서 간호를 하기로 했다. 병간호를 처음 해보기도 하고 살갑고 애교 있는 성격이 아니라 걱정이 많았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 옆에서 계속 기도해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동안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떼쓰는 기도는 안해야지 하며 살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 이 말씀이 어느 날엔 자연스럽게 나에게 스며들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구할 때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당차게 구하게 되었다. 나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1. 병원 안에서의 모든 일들과 생활, 하나님의 파스한 품으로 보호하여 주세요.
2.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3.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엄마에게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4. 다른 병이 생기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수술을 마치고, 안이 아닌 아주 평범한 종양이었다는 결과를 받게 해주세요.
5. 회복도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져 몸도 마음도 완전하게 되원하게 해주세요.

나는 병원 안에서의 하루하루에 감사제목을 찾기 시작했다. 참 예쁜 풍경을 보게 하심에 감사하였다. 여러분이 중보해주시는 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수술 당일이 되었다.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서 가는 내내 눈을 꼭 감고 계셨고, 그런 엄마를 보니 내 마음이 울려왔다. 아무 말도 못해주고 손만 잡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 했는데 질하고 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엄마의 볼을 쓰다듬어 주었다. 수술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엄마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 해주셨다.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매번 느끼며 살아가는 중이다.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문자, 수술이 종료되어 회복실에 있다는 두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를 읽거나 기다렸지 모른다. 수술이 잘 끝났다고 했고 회복만을 노력하며 기다렸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돈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이 가장 큰 선물이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내일모레도 빨리고 격정되지만 하루를 마치고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해주실 것이니! 견뎌내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루하루 적어두었던 기도 중 일부이다. 고난이 은혜인 이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그 고백은 귀하다. 하나님과 주변의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여서 쓸쓸한 밤이 아니고 희망으로 묵은 밤이었다. “토요일에 퇴원을 하더라도, 아니면 더 늦어져 다음 주까지 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은 완벽하시기에,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낼 것입니다. 내일도 내일모레도 하는 뜨고 눈은 피려야 할 것인데, 아주 살짝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회복속도에 따라 퇴원 날짜가 미뤄진다고 했다. 또 나도 모르게 퇴원 날짜를 내가 정해두었다. ‘입원을 이때 하면 며칠 정도 걸린다 했으니 이때는 퇴원하겠지?’ 아니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였다. 참 감사하게도 토요일이 되기 전인 금요일, 엄마에게 꽃혀있던 바늘들과 흉관을 하나씩 뺐다. 얼른 집에 가고파하는 엄마의 의지도 강했고,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있다는 뜻으로 피가 많이 새지 않았다. 하나씩 하나씩 평온을 되찾았다. 중보기도의 힘이였다.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수시로 엄마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편히 잠든 적이 없다. 쉽진 않았지만 나는 큰 선물을 받았다. 엄마가 갑자기 우리 집에서 자게 된 그 주, 목요일, 오빠가 엄마랑 단둘이 병원 다녀온 날이다. 오빠는 어머니랑 정말 많은 비밀을 나눴다면서, 근데 안 알려줄 거라고 놀리면서도, 밤에 엄마가 주무신 후 하나만 알려줬다.

“지희야 오늘 어머니 나랑 약속했다.” “무슨 약속?” “교회 가시기로 한 약속!” “??? ” “지금 당장은 교회 가기 힘드시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시네. 그런데 조금만 일 정리되고 여유 되시면 교회 가시기로 했어.” “그리고 예전에 지희를 교회 못 가게하면서 했던 말들이 지희한테 상처로 남지 않았나 걱정하시더라.”

나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안겨 올랐다. 내 평생 소원, 나 부자 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받을 복을 다 엄마에게 주고 싶을 만큼 가장 원했던 한 가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무엇이든 상상 하기가 자연스러운 나인데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상상만큼은 너무나 어려웠다. 그만큼 나에게 정말 큰 기도제목인데 주님께서 이루어주셨다. 어찌던 내가 너무 겁을 내고있었나보다. 내 안에 커다란 공간을 가족구원이라는 소망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여유로운 공간이 생겼다. 나라, 세계 공중체의 구원이라는 기도제목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주신 것 같다. 아직 부모님은 예수님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아직까지 과정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자! 열어주신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주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엡 6:17)



오늘 나보다 한 학년 아래인 친구와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었다. 서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 보니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애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작년의 나를 보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보이지만 남들과는 다르게 가고 싶어서 이리저리 걸음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그저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었던. 그랬던 작년의 나. 어른들이 해주던 말처럼 그 애에게 뭔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었다. 그 애는 놀라면서 “진짜요?”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그렇죠.” 하며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엔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네.”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수요일에 시작되기 전 엄마와 만나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레도 공부하는 조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어차피 2학년 되면 대학대학커리면서 어떻게든 정하게 되어있다고 그랬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는 “으음... 그렇지.”라고 동의하시며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주며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셨다. 그런데 다 얘기하고 보니 이전 어떤 생각도 든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준 건 엄마였다는 사실을 왜 잊고 있었을까.....”

작년이었다. 학원에 다니면서 가까스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사슴에 웬대인 듯이 너무도 답답하고 뭔가 참을 수 없어서 죽을 까지 생각했던 날이 있었다. 아침에 스탬퍼스를 타면 ‘나 왜 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하필 시험기간도 겹쳐지면서 그런 감정이 더욱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버티다 못한 나는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에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계획을 엄마에게 말하면 들어주지 않을 줄 알았다. 다른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학원이라도 다녀야 성적이 나오지 않겠냐고 잔소리를 더 할 줄로만 예상했다. 하지만 오히려 엄마는 알았다면서 이번 시험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하자고 받

아들여주셨다. 당황스러웠겠지만 망설임 없이 그래주셔서 감사했다. 지금도 그때 엄마의 그 말은 고마움으로 내 기억에 남아있다. 이 결단은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고, 내 삶에 부지개 꽃을 피워주었다.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서 학습 진도를 조금은 느리게 따라가고 있는 지금도 그렇다. 학원에 다닐 때에는 한 번 도전하고서 안 되면 의지가 무너지기 일쑤였다. 또한 ‘이건 싫은데.’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부정적인 부분들이 ‘어차피 지나갈 텐데. 괜찮아.’라고 생각으로 바뀌면서 긍정적으로 넘기게 되었다. 죽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탐색하는 등의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는 일도 줄어들었다.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움직이게 된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는 내 절반 이상을 좋은 쪽으로 바꾸어 준 것이다. 며칠 전에도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서 엄마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는 “...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강요하기보다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 나는 그 대안을 듣고서 “근데 어떤 데도 있던데. 여건 어때요?”라고 호응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의논할 수 있었다. 엄마는 나의 견해를 전부 수용해 주셨고, 직접 정보를 알아보기도 하시면서 더 자세히 알려주셨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여기 학과는 어때냐고 물으면 “오, 네가 가면 딱 좋을 것 같다. 완전 너랑 잘 어울려.”라고 대답해 주시며 칭찬도 아낌없이 퍼부어 주셨다.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사주셨고,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다. 그 덕분에 나는 여러 공모전에도 도전할 수 있었고, 더욱 자신감을 가져서 내가 하던 일에 10000%의 힘으로 열정을 다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네이버웹소설에서의 활동을 시작했을 때. 엄마는 ‘네가 연재하는 작품을 알려주면 엄마가 매주 읽어보고서 좋아요 눌러줄게. 알려줘.’라고 말씀하셨다. 엄마가 먼저 다가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지지해 주는 지지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엄마의 이러한 응원이 힘이 되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라도 하면 그날은 축하파티를 여는 날이 되기도 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엄마는 내 기분을 가장 잘 아시고 보살펴주신다. 나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바로 알아차리시고서 “오늘은 맛있는 거 먹을까?”, “같이 꼬치부릴까?”라고 먼저 말을 걸어오시면서 기분을 풀어주신다. 요즘에는 공부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엄마는 전보다도 더 관심을 기울여 나를 돌봐주신다. 달달한 것을 먹고서 당을 충전하고 공부할 하면, 엄마의 응원에 힘을 얻어 다시 집중하게 되고, 한 문제씩 집중하며 볼 수 있게 된다. 엄마! 나중에 내가 좋은 거 많이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막 1:15)

사명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마 28:19)

# 동광제일교회 창립 45주년 임직감사예배

동광제일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임직감사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충성된 일꾼을 세우고자 임직식을 진행하오니,

교회와 임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 원로목사 김순갑
- 담임목사 김덕정
- 시무장로 김기춘 장로 김진한 장로

일시 2023. 5. 21(주일) 오후 3시

장소 동광제일교회 2층 본당

## 임직자 명단

- |      |     |         |
|------|-----|---------|
| 원로장로 | 양형열 | 차영진     |
| 안수집사 | 김영기 | 이상훈 유태봉 |
| 안수권사 | 김연옥 | 노은숙 서금숙 |
|      | 심혜영 | 이미례 홍정숙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 15  
☎ 032) 521-9191  
www.dkji.or g